

대학생의 소비욕구와 기대결혼비용이 기대결혼연령에 미치는 영향

유 계 숙(경희대 교수)

최근 우리 사회는 지속적인 고용불안과 청년실업, 그리고 높은 집값과 결혼비용의 상승 등으로 인하여 미혼남녀가 결혼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전통혼례의 본질적 의미가 퇴색한 현재의 결혼문화는 상업적·물질적 측면에서 외형이 확대되어 결혼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으로써 과소비와 허례허식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만혼 및 비혼의 원인으로 작용한다(여성가족부, 2012).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향후 결혼의향이 있는 미혼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소비욕구 수준과 기대하는 결혼비용 및 결혼연령의 경향을 살펴보고, 소비욕구 수준이 기대결혼비용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이들 변인이 대학생이 기대하는 결혼연령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 소재 4년제 대학교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성비와 학년을 안배한 유목적적 표집을 실시하여 조사시점 현재 미혼이면서 향후 결혼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384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대학생의 소비욕구를 측정하기 위하여 Kim(2007)이 개발한 소비욕구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28문항의 7점 척도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의 소비욕구가 높음을 의미한다. 28문항을 주성분분석한 결과, 동조의 욕구, 인지정서적 욕구, 자기개발 욕구, 심미적 욕구, 과시적 욕구, 차별화 욕구 등 총 6개의 소비욕구 하위요인을 도출하였으며,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의 평균과 총점을 해당 소비욕구의 점수로 사용하였다. 이밖에 연구대상 대학생의 결혼의향 여부와 함께 향후 결혼에서 상대방측의 비용을 제외하고 본인측이 부담할 것으로 기대하는 결혼비용액수와 자신이 기대하는 결혼연령을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으며,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질문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예비결혼세대인 대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소비욕구 수준이 높으며, 향후 자신의 결혼비용을 평균 8천3백68만원, 결혼연령은 평균 29.76세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본인측이 부담할 것으로 기대하는 결혼비용은 짐장만의 부담 등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고, 여러 가지 소비욕구 중 유일하게 과시적 소비욕구가 기대결혼비용을 높이는 주범으로 나타났으며, 본인측에서 부담할 것으로 기대하는 결혼비용이 많을수록 대학생의 기대결혼연령은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결혼비용 부담구조 및 과시적 결혼문화의 병폐를 입증하는 것이며, 이러한 과시욕과 높은 결혼비용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현재의 만혼화 추세에 부정적 영향을 통하여 저출산이 보다 심화될 우려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예비결혼세대인 대학생들에게 합리적 소비와 바람직한 결혼문화를 교육하는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